새 신앙으로의 초대 4강

2016.06.12
길잡이
정원진 목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 '하나님' 개념의 중요성

'성경'에 이어 '새 신앙으로의 초대'가 다룰 두 번째 중심 화두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호하든 명확하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관(神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까이 계신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 개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저 바깥에 계신 초자연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 개념은 우리의 신관과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표현을 초월한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도, 하나님이란 말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궁극적 실재(reality)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하나님'이란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그 어떤 실재'에 대해 할 수 없이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실재는 인간의 사고나 언어로 대상화할 수 없고, 그 어떤 개념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무(無)' 또는 '신비'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런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야훼'("나는 나다. I am what I am")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첫 구절을 보면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명비상명(名可名非常名)"이란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도(道)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곧 그 '무엇'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경의 첫 구절은 "궁극적 실재는 우리의 제한된 표현을 초월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궁극적 실재에게 이름이나 속성을 붙이면, 그것은 이미 그 이

름이나 속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 무엇이 되기에 더 이상 절대적인 실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절대자로서 인간의 세계 이해의 지평 저편에 존재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세상 안에 계시하시면서도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는 '신비'로 머뭅니다. 아무튼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능력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머리나 지식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나 생각, 견해나 개념, 이론이나 교리 등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입니다.

3. 하나님에 대한 두 개념

'하나님'이란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 속에 두 가지 상반된 이해방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 두 이해방식은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 내내 줄곧 함께 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주 너머의 존재, 우주와 구별된 또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 지고의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존재는 아주 오래 전에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주는 예술가와 예술품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후자는 전자가 만들어낸 것으로 둘은 서로 '분

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에서 외따로 떨어져있는 존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싼 '신성의 현존'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에너지로 이뤄지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이상의 실재로, 어디에나 존재하며 세계의 시공간 속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저 위, 저 밖, 저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이상'에 있습니다.

(1) 존재로서의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도 첫 번째 방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방식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나타낸 성경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라는 말이 인격적 특성을 지닌 존재를 가리킨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알고, 바라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또한 심판하고 처벌합니다.

또한 이 인격적 존재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주의 지배자'와 '모든 도덕적 권위의 기원'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세자로서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간섭과 개입을 통해 우주와 관여합니다. 개입만이 우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우주 안에서 행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도된 놀라운 사건들, 특히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의 출생, 기적, 죽음, 부활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 개입하신 일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개입하시는데 특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개념에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때때로 개입하신다면, 개입하지 않으시는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끔찍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개념이 도대체 말이 될까요?

만일 하나님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중지시키도록 개입하실 수 있었는데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들을 중지시키도록 개입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때로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멈출 수 있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닥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경우들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갖가지 비극적인 사건들과 사고들, 학대, 질병으로 인한 때 이른 죽음들이란 무엇일까요?

이렇듯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2) 신성의 현존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의 두 번째 지시 대상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싼, 또한 우리 안

에 머무는 '신성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지시대상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분"(행 17:28)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우주 너머 어딘가에 우리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만물이 존재하는 '일자'(一者)', 우리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실재입니다.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 우리는(나아가 우주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은 두루 존재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움직이며, 물속에서 살고, 물속에 존재합니다. 물은 물고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물은 물고기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 이상의 실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아우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 개념이 하나님을 우주로 환원시키거나, 하나님을 우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성의 현존으로서의 하나님은 우주 이상이며, 우주는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 그 이상"입니다. 이런 뜻에서 2세기의 신학자 이레나이우스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며, 하나님은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이상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에워싼 신성의 현존이라는 개념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줄곧 자라온 사람이라

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다고, 즉 '어디에든 있다'고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란 말이 '존재'나 '초존재', 혹은 우주와 분리된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신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하는 실재를 가리킨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선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사고하는 방식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곧 이 우주가 매순간 그 존재를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길 멈춘다면 만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창조는 우주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로 소급되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사고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실재라면, '개입'이란 말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고 모든 곳에 현존합니다(하나님의 현존). 성경은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신성과 관계 맺고, 신성에 우리를 개방하며,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불가능했을 일들이 가능해 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행동은 서로 협력, 즉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상호작용). 여기에 개입이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정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입

니다. 하나님을 우주와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는 방식보다 훨씬 정통적입니다. 신학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토대를 이루는 목소리들은 하나님이란 말로 가리키는 실재가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 이상의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유리된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를 일컬어 '초자연적 유신론'(supernatural theism)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주와 분리된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성경과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까지 두루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해방식을 19세기 초에 등장한 용어로 범재신론(凡在神論, panentheism)이라고 합니다. 범재신론은 범신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Panentheism이란 말의 헬라어 어원을 풀이하면 "모든 것(凡, pan)이 하나님(神, theos) 안에(en) 있다(在)"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범신론과는 달리 신의 초월성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 참고

(1) 여러 가지 신론들

다신론(polytheism), 단일신론(henotheism), 유일신론(monotheism)

무신론(atheism), 실제적 무신론(practical atheism)

(2) 존재(being)냐 비존재(non-being)냐?

존재의 근거(the ground of being), no-thing, Nothing

⇒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무엇, 따라서 '존재함'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존재함'이 무엇인지 물음